

도난 문화재 소유권 대립

백양사 "영산회상도 반환 안하면 소송"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선의취득...불가"



국내 도난 문화재였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사진 불상 뒤편 벽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소유자인 백양사(주지 명공)와 이를 구입한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유권 분쟁은 최근 일제에 강탈당했던 조선왕조실록의 '서늘대-월경사'간 소유권 논란에 이은 것인데, 이 지역 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성 백양사는 26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양사 '영산회상도'를 비롯 해남 대흥사 '사천왕도'(1978년 도난), 나주 불화사 '동종'(1992년 도난) 등 지역 문화재에 대해 반환을 요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성 백양사의 '영산회상도'(세로 4m x 가로 3m)는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극락보전의 아미타불 뒤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18세기의 화려한 색채 미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산회상도는 불교 문화사적 가치로 인해 국보급 문화재로 꼽힌다. 지난 94년 9월 도난당한 이후 10여 년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라는 것이 백양사 스님에 의해 밝혀졌다.

백양사 측은 "불교미술박물관에 우리 문화재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박물관 측이 '선의취득(도난 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 조항'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과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측은 "영산회상도는 지난 95년 고미술상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문화재청에 도난 여부까지 확인해 본 작품"이라며 "사적인 이익을 떠나 불교 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는데 잘못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백양사 측은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정기자 ksaj@kwangju.co.kr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석가모니가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그린 탱화. 법화경변상도(法華經變相圖)라고도 한다. 석가여래를 중앙에 두고 좌우에 보살, 10대 제자, 호법신(護法神)인 사천왕·팔부중 등과 화불(化佛)을 배치하고 있다.

도시락·빵·컵라면... '한 끼 때우기' 급급

"대학 수능시험을 4개월여 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기에 갑작스런 급식 파동으로 기숙사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학교가 혼란에 빠져 진학지도가 걱정됩니다."

CJ푸드시스템의 급식 사고로 지난 23일부터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된 광주 보문고의 임은철 교감은 26일 낮 도시락을 싸 들고 급식소로 향하는 학생들을 보며 긴 한숨과 함께 아쉬움을 쏟아냈다.

이날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 학생은 전교생 1천65명의 79.2%인 844명. 부모가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준 학생도 많았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가정 자녀처럼 자신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온 학생도 더러 있었다.

기숙사 운영 중단·학생들 조기 귀가 인성고는 지역업체로 교체 혼란 막아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은 114명(10.7%)은 학교 매점에서 빵이나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친구의 도시락을 얻어 먹었다. 3학년 김모(17)군은 "엄마 없이 아빠랑 살기 때문에 아침은 걸렸고 점심 도시락도 아예 준비하지 못했다"며 달랑 빵 한개와 우유 한개로 점심을 때웠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식비 지원 대상인 107명(10%)은 학교 측의 배려로 학교 인근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해결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식비 지원 대상 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내심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학교 측은 급식 중단으로 학생들이 조기 귀가할 경우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킬 요량으로 저녁식사도 준비했다. 오후 5시40분부터 6시30분까지 3개조로 나눠 통학버스 5대를 이용해 인근 호남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광주 보문고 학생들이 26일 낮 학교 급식소에서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학교 매점에서 구입한 컵라면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교 측은 그러나 기숙사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1·2·3학년 96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호남대 식당이 오전 10시부터 문을 열어 도저히 아침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CJ푸드시스템에 급식을 위탁해온 수피아여고, 송신공고, 송의중 등 광주지역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피아여고의 경우 전교생 1천281명 중 1천24명(79.9%)이 도시락을 싸왔다. 급식지원 대상인 86명은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수피아여고는 급식 중단에 따라 1·2학년은 오후 6시20분 귀가시키고, 3학년도 희망자에 한해 직접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송신공고는 전교생 1천522명 가운데 235명(15.4%)만이 도시락을 싸왔다. 급식지원 대상 339명을 포함해 1천287명은 학교 매점에서 빵과 컵라면 등으로 점심을 때우고 대부분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4시30분 귀가했다. 학교 측은 27일부터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게 식권을 발급해 매점에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송의중은 전교생 919명 중 756명(82.2%)이 도시락을 챙겨왔다.

반면 인성고는 기숙사생 100여명을 포함해 전교생의 면학분위기와 입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 CJ푸드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지역 업체인 '리푸드시스템(주)'과 계약을 새로 체결해 26일부터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CJ푸드, 학교급식 전면 철수

광주·전남 남품업체 10곳 타격

CJ푸드시스템은 학교 급식 사고와 관련, 급식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철수 대상은 광주·전남 7개교 등 전국 93개 초·중·고 및 35개 대학이다. CJ푸드시스템은 학교 급식 지역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투자한 220억원 상당 급식시설을 해당 학교에 무상 기부기로 했다. 또 직영화가 완료될 때까지 영양사를 해당 학교 급식장에 그대로 상주시키고 관련 인건비를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회사 측에 각종 육류·채소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광주·전남 업체 10여 곳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종업원들의 고용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또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조리사·급식원과 물류·시설·자재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업체는 급식사고로 인해 회사 측 정규인원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500여개 업체 종업원 등 최고 2만여명이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내다봤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광주·전남 34곳 CJ푸드 급식

광주·전남에서는 34곳(광주 16곳, 전남 18곳)의 학교와 병원, 기업이 CJ푸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의뢰한 곳은 ▲중·고 7개교 ▲대학 1곳 ▲병원 5곳 ▲기업체 21곳이다.

학교는 송의중·보문고·인성고·송신공고·수피아여고(이상 광주)·목포 정명여중·고이며, 병원은 원광대 학교 광주 한방병원 등이다. 기업의 경우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시스템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급식사고는 없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업체도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연예2차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지
문의 (062)366-4220

승용차 바다 추락 원인 찾기 '골머리'

○...지난 25일 밤 여수시 묘도 선착장에서 발생한 에쿠스 승용차의 추락사고 원인을 놓고 경찰이 골머리.

○...26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인양된 사고 차량을 조사한 결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른바 '뫼트레이크'가 잠겨 있었고 변속기도 'P(주차)' 위치에 놓여 있는 데다 선착장 경사도가 1.5도로 완만, 차량이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갈 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 같은 정황은 차량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추락했을 것이라는 경찰의 추측과 사뭇 다른 결과여서, 경찰은 차체에 문제가 있거나 외부 원인에 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과수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검식을 의뢰.

○...문제의 차량은 25일 오후 8시20분께 묘도 선착장에서 대기하다 운전자 주모(52·경기도 성남시)씨가 표를 사라간 사이 바다로 추락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주씨의 부인 이모(52)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었다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침대, 매트리스, 소파, 의자 등 다양한 가구와 생활용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인정신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토치(TORCH) 사무용의자, 의자, 소파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